

위생관리계획의 수립(마지막회)

가톨릭의대산업의학연구소
소장 이 광 뮤

지난호에서는 계획의 입안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이어서 입안하고 결정된 계획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IV. 제 4 단계 (계획의 실천, DO)

1) 계획이 보관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의 내용이 계획을 입안한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어서는 일도 안된다. 계획에 따라 하달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만으로는 실천되기 어렵다.

명령하달 이전에 우선 그 일을 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 현장의 근로자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침 조례나 회의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설명서나 “포스타”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수립한 관리자나 감독자들이 출선해서 실천하거나 항상 관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감독자들이 “지시를 하였으니까 이젠 내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기 쉽다. 전원의 노력으로 결과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계획의 실천을 위한 조직을 갖춘다

계획을 수립할 때도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

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조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단위 작업부서마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 팀의 책임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즉, 모든 사람이 각각 역할을 맡음으로써 의욕도 생기고 책임감이 생겨서 자기의 일상업무로 생각하게 된다.

3) 어중간한 실천행동은 아니함만 못하다.

계획을 실천에 옮겼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결과가 얻어지도록 추진하고 검토가 따라야 한다. “해보았더니 별 것이 없더라”라고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계획을 불신하여 흐지부지 되어버리기 쉽다. 전원의 노력으로 결과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V. 제 5 단계 (결과의 검토, Check)

계획을 실천으로 옮김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실천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어떤 항목을 “체크”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한 활동상황, 계획된 일정에 대한 진척사항, 계획활동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리고 “체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만일 효과가 기대한 것 같지 않을 때는 그 원인, 이유 등을 다시 검토하여 이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해야 하겠다.

이러한 “체크” 단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체크”하는 대상을 연간계획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각 단위 작업장별 또 전체 사업체의 산업위생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연간계획 자체가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개선하는데에 있는 것인데 계획은 잘 수행되더라도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미비할 때는 실제로 현장의 위생관리는 향상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계획수행의 추진만 “체크”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효과도 같이 “체크”하여야 한다.

또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관계법규가 개정되었거나 현장의 시설이나 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VI. 제 6 단계 (결과에 대응한 대처)

5 단계에서 “체크”에 의하여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면 수시로 수정하여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처음 계획수립시에 밀한 것과 같이 위생관리의 연간계획은 미리 예측된 결과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미비점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곧 수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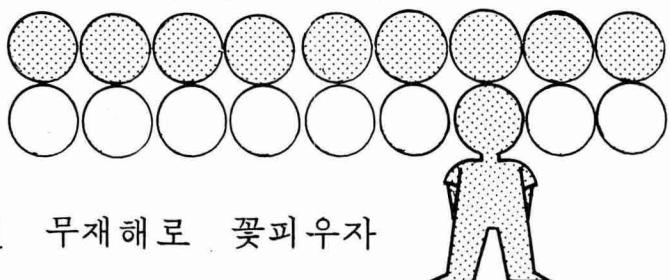
계획이란 행사가 아니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 그때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연간계획의 목적은 위생관리의 수준을 높여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자는 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끝으로 현재의 각 산업장에서 일하는 위생담당자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돌이켜보고 계획이 수립된 사업장에서는 그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만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미리 구상하여 보도록 권하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생담당자들이 각자가 맡은 사업장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막연히 외부의 보건진단 기관이 측정하여준 환경측정 성적을 3년간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며 항상 작업자의 건강보호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모두 좋은 연간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밝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것이다.

4회에 걸쳐서 연재한 사업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끝내면서 사업장마다의 연간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좋은 연간계획이 이 책자를 통해서 소개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노사화합 이룬터전 무재해로 꽃피우자